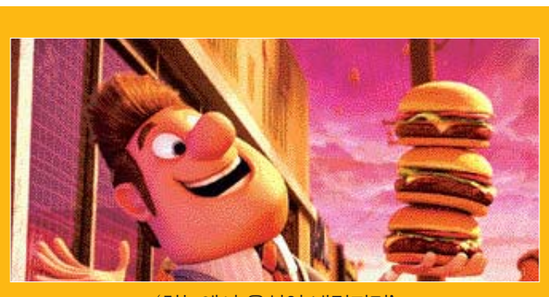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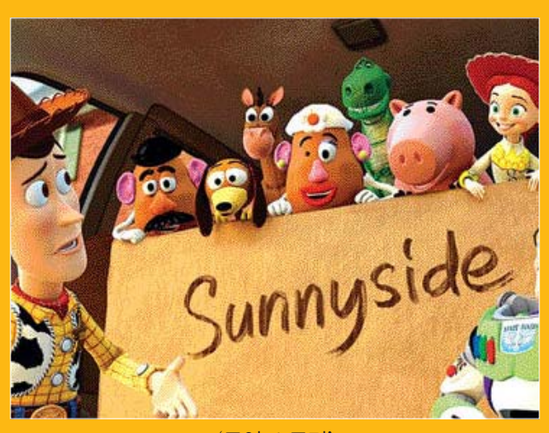
# ‘3D 영화’ 세계를 덮치다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타이타닉’



‘토이 스토리’

## ‘아바타’ 외화 사상 첫 1천만 관객 초읽기
## ‘이상한나라 앨리스’ 등 20여편 개봉 예정
## 국내서도 곽경택·윤제균 감독 제작 가세

‘트랜스포머’를 제치고 외국 영화 관객 동원 신기록을 기록한 ‘아바타’가 외화 사상 처음으로 1천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아바타’의 성공 요인으로 여러가지 것들이 꼽히지만 본격 3D 영화라는 점도 관객들을 유혹하는 요인이었다.

‘몬스터 대 에이리언’ 짐 캐리 주연의 ‘크리스마스 캐롤’, ‘베오 울프’ 등 3D 영화가 개봉되기는 했지만 국내에서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건 ‘아바타’가 처음이다.

‘아바타’가 전세계 박스 오피스를 휩쓸며 흥행 수익을 올리면서 3D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할리우드에서만 올해 20여편의 3D 영화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3D 영화가 제작될 예정이다.

가장 강세를 보이는 부문은 애니메이션이다.

오는 2월 11일 개봉예정인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은 3D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면서 생긴 ‘음식 재난’을 그린 영화로 햄버거 비, 스파게티 폭풍 등 재미있는 볼거리가 풍성하다. 미국 개봉 당시 전미 박스오피스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었다.

10년만에 다시 돌아온 ‘토이 스토리3’ 시리즈 역시 3D로 제작됐다. ‘애니메이션의 명가’ 픽사가 제작한 ‘토이 스토리’는 원년 멤버인 톰 행스크가 다시 목소리 연기에 나서는 등 또 다시 관객을 유혹할 채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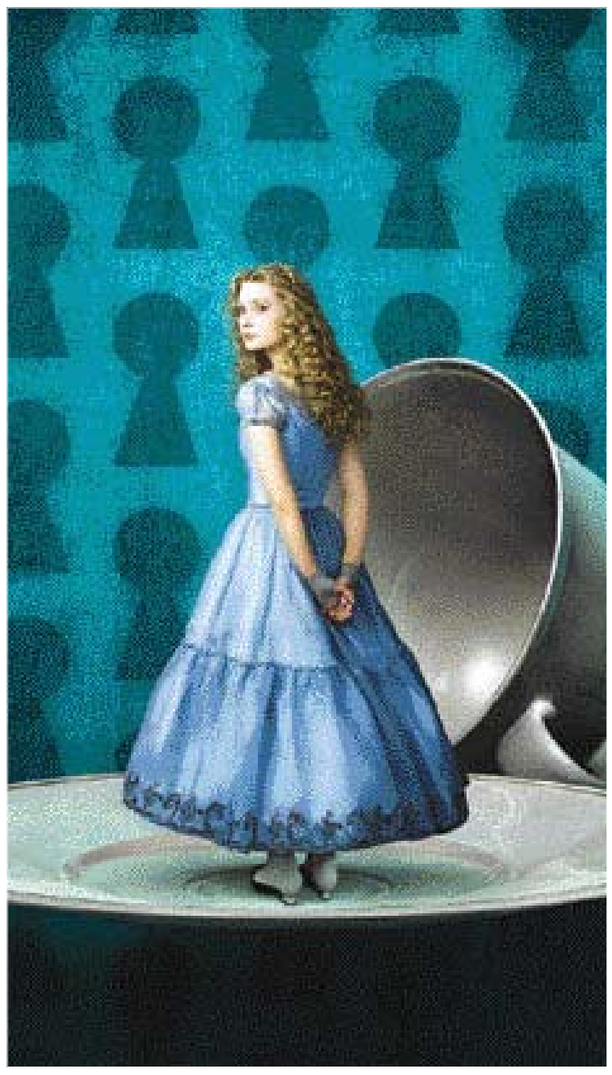
찰리 채플린도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다. ‘찰리 채플린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인도와 프랑스 합작으로 진행된다. 또 픽사가 제작하는 ‘라푼젤’ 역시 3D로 제작됐다.

루이스 캐럴의 유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3월 4일 개봉 예정)도 3D로 관객들을 만난다.

‘스위니 토드’, ‘가위손’의 팀 버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작품으로 미치광이 모자 장수 역을 맡은 조니 뎁과 앤 해서웨이, 헬레나 본햄 카터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실사와 CG 합성영화로 기존의 작품에서 독특한 화면 미학을 선보여온 팀 버튼 감독이 만들어낸 ‘원더 랜드’의 모습이 기대를 모으게 한다.

젊은층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트와일라잇’ 시리즈 역시 3편을 3D로 상영한다. 2편 ‘뉴문’에 이어 오는 6월 개봉 예정인 3편 ‘이클립스’는 시리즈 최초로 아이맥스 상영을 결정했다.

그밖에 ‘반지의 제왕’으로 전 세계 영화팬들을 사로잡았던 피터 잭슨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틴틴’을 제작중이며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 역시 자신의 전작 ‘타이타닉’을 3D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밖에 쏘우 시리즈 7편, 픽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라푼젤’도 3D로 제작중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3D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영화계 역시 3D 제작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 ‘해운대’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윤제균 감독은 신작 ‘7광구’를 3D로 만든다. 망망대해에 있는 석유 시추선을 배경으로 바이러스로 변형된 괴물과 시추선 사람들의 사투를 그려낸 작품으로 현재 여주인공으로 하지원이 캐스팅 된 상태다.

영화 ‘친구’의 곽경택 감독 역시 2002년 월드컵 당시 벌어졌던 제 2차 연평해전을 다룬 전쟁 영화 ‘아름다운 우리’는 국내 최초 풀 3D실사로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새 영화 500일의 썸머

운명같은 사랑을 믿는 남자와 사랑은 환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독특한 500일간의 연애담을 그린 영화다.

진정한 사랑은 운명처럼 찾아온다고 믿는 톰은 어느날 사장의 새로운 비서로 채용된 썸머에게 한눈에 반한다. 자신의 반쪽임을 직감한 톰은 이후 대책없이 썸머에게 빠져든다. 하지만 그녀에게 접근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랑도 남자친구도 눈꼽

### 사랑은 운명인가
### 아니면 환상인가
### 진정한 사랑이란…

만큼도 믿지 않고 구속받기 싫어하는 썸머는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자며 마음을 주지 않는다.

썸머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톰은 점점 지쳐만 가는데….

보통의 로맨틱 코미디와는 다른 전개를 보이는 작품으로 뮤지컬, 고전영화 패러디, 인터뷰 등 재기 넘치는 연출이 눈길을 끈다.

조셉 고든 래빗과 주이 드샤넬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안드레아 본 포스터가 담당한 음악은 영화를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다. 패트릭 스웨이즈와 홀 앤 오츠의 노래 등 주옥같은 노래들을 만날 수 있다.

〈15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